

정답	D형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①	④	③	③	①	③	④	④

해설	
1.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빈칸 뒷 문장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데워질 것이다”라는 말로 봐서 열 차단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 차단을 의미하는 말은 보기 ②번의 “insulate (절연하다, 단열시키다, (열 등을) 막다)가 적절하다. ① sanitary (위생의, 보건상의, 위생적인) ③ recyclable (재생활 수 있는) ④ waterproof (방수의)
2.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② touch off (~을 유발하다) = give rise to ① look after = ~을 돌보다, ~을 맡다, ~을 살피다 ③ make up for = ~을 보상하다, 벌충하다 ④ keep in contact with = ~와 연락을 유지하다, 접촉하다
3.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④ alleviate = ~을 완화하다 = relieve ① complement = 보완하다, 덧붙이다, 보완물 ② accelerate = 가속화되다, 가속화하다, 속도를 높이다 ③ calculate = 계산하다, 산출하다, 추정하다, 추산하다
4.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① shun 피하다 = avoid 피하다 ② warn : 경고하다, ~을 알리다 ③ punish 벌주다, 혼내주다, 징벌하다 ④ imitate 모방하다, 따라하다, 흉내내다
5.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③ 가까운 미래의 경우이면서 왕래발착동사(go, leave, come, start, begin 등)의 경우 be -ing 의 진행형을 통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보기 ③번에 am starting라는 현재 진행형을 썼지만 at noon today라는 미래 시제를 통해 미래의미가 되어 올바르게 쓰였다. ① how much -> how many : how much에서 much는 불가산명사를 받으므로 뒤에 있는 동사 are와도 호응되지 않고, 문맥상 much는 stars를 받고 있으므로 복수명사를 받는 many로 바뀌어야 한다. ② excited -> exciting: excite는 “~을 흥분시키다”는 뜻으로 주어가 사람일 경우 흥분을 받는 대상이므로 excited라는 p.p.를 쓰지만 주어가 사물일 경우 흥분을 시키는 주체가 되므로 능동인 exciting으로 바뀌어야 한다. ④ used to loving -> used to love : “used to 동사원형”이 되어야 “~하곤 했다”의 의미가 된다.
6.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④ make a case for : ~의 정당성을 입증하다 = strongly suggested. ① object to = ~에 반대하다 ② dream about = ~을 꿈꾸다 ③ completely exclude = 완전히 배제하다.
7.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② whomever -> whoever : whomever가 전치사의 to의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전치사 to의 목적어는 “whomever ~ questionnaire”까지, “절”을 목적어로 받고 있다. to 뒤의 목적어절을 보면 completes라는 동사가 바로 나오므로 앞에 주어와 없고 whomever는 목적격에 쓰는 복합관계대명사이므로, 주격에 쓰는 whoever로 바뀌준다. ① since절에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일을 나타내는 대과거 had expired (보증이 만료된 것)를 쓰고, 주절에 부사절보다 나중에 발생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시제 were not을 써서 올바르게 쓰였다. ③ 가정법 문장에 now, today, tomorrow 같은 시간부사구들이 있으면 부사절에 had p.p., 주절에 과거동사를 써서 혼합가정법으로 쓸 수 있다. ④ what was worse(설상가상으로)라는 표현으로 올바르게 쓰였다.
8.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③ were -> was : 도치 문장으로 주어는 “a 1961 bejeweled timepiece” 단수이므로 were를 was로 바뀌준다. “(Among ~sale)”까지는 부사구로 “부사구 + 동사 + 주어”이렇게 도치된 상태이다. 이때 동사의 수일치는 뒤의 주어에 맞춰준다. ① “once declaring”은 분사구문으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채 중복되는 주어만 생략을 시키고 동사를 -ing 형태로 바뀌놓은 것이다. 문장의 주어는 “Elizabeth Taylor”이므로 문맥상 Elizabeth Taylor가 “declare(선포하다)”했으므로 능동인 declaring은 올바르게 쓰였다. 문맥상 접속사 once도 올바르게 쓰였다. ② 여기서 “that”은 주격관계사로써, 앞의 선행사 auction(경매)라는 단어를 받고 있고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므로 관계대명사 절 내 주어와 없으므로 불완전한 문장도 맞아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로써 올바르게 쓰였다. ④ with 분사구문의 형태로 with 목적어 + -ing/p.p.를 쓸 수 있는데 문맥상 covered(p.p.)를 써서 올바르게 쓰였다.
9.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A) 앞부분까지의 글의 주제는 Assertive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A) 뒤에서부터 aggressive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바뀌고 있다. 글의 소재가 바뀌고 있으므로 (A)에는 보기 ①번의 in contrast(이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 however(그러나)가 들어가야 한다. (B) 앞에서는 aggressive behavior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적 특징에 대해 설명(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자기들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함)을 주고 (B) 뒤에서 이러한 문제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 나오므로 인과를 설명하는 thus(그래서)가 적절하다.
10.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첫 문장에서 “touchscreen technology”라는 소재를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 “some touchscreen”이라는 말과 글의 중간에 “other tablet ~” 부분으로 touchscreen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글의 주제는 보기 ③번의 “how touchscreen technology works(터치스크린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11.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빈칸 위에서 B가 “그것들(스팸이메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안해”라는 말이 나오고 빈칸 뒤에서 B가 “음, 너는 설정에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어”라고 어떤 제안을 해주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보기 ②번의 “Isn't there anything we can do(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가 적절하다.
12.	정답: ② 해석: ② A: 이봐, 너희들 지금 어디가고 있어? B: 우리 지금 식료품점 가고 있어. ① A: 지금 몇시까지 아시나요? B: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③ A: 혹시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B: 네 칭찬해드리죠. ④ A: 제 지갑 보신분 있어요?

	B: 오랜만입니다. 해설: 해석참고
13.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① to tell -> telling : regret to V(하게 되어 유감스럽다), regret Ving(했던 것을 후회한다) ② 비교하는 대상이 His experience(그의 경험)과 그녀의 경험(hers)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쓰였다. ③ remind A of B 구문으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란 뜻으로 올바르게 쓰였다. ④ "신체 어느 부위를 보다"라고 할 때 "look + 사람 + in + 신체부위"로 쓴다. 주격 관계대명사 who까지 올바르게 쓰였다.
14.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첫 문장에서 Louis14세가 그의 위대함에 걸맞은 궁전을 짓고 싶어 했다고 하면서 세 번째 줄 "After almost fifty years ~ a quarter of a mile long" 부분에서 거의 50년에 걸쳐 작은 사냥용 쉼터를 거대한 궁전으로 변화시켰다고 언급하고 있고, 이 다음부터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써 글의 제목은 보기 ④ "Versailles: From a Humble Lodge to a Great Palace(베르사유: 초라한 쉼터에서 위대한 궁전으로)"가 적절하다
15.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흐름과 어색한 문장을 찾는 문제는 바뀌 말하면 글의 전체 주제와 어긋나는 문장을 찾는 것과 같다.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지문의 앞 부분에서 등장한다. 앞 부분의 글의 주제는 "철학자들은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인류학연구를 그들의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이다. 그런데 보기 ③번의 in fact 부분에선 "위대한 철학자는 인류학에서 영감을 얻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16.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빈칸의 앞 부분(but 앞 문장)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구체적인(눈에 보이고 실재하는) 물건들을 돈, 재산, 다른 물건들을 물려받았다고 언급한다. But(그러나)이 나오는 것으로 이와 반대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함을 추론할 수 있고 빈칸 뒤에서 "완전히 알 수 없는 어떤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의 일들 특정 문제"등과 같은 것들을 물려받았다고 설명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보기 ③ "much less concrete and tangible(훨씬 덜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는)"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17.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But 뒤에서부터 Seniors(나이드신 구성원들)이 가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 "소란들에 균형을 맞추고 합리적인 중심점을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요지 보기 ①번의 "Seniors have been making contributions to the family(노인들도 가족에 기여해왔다)"가 적절하다.
18.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시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산업화 이전엔 대부분의 사회가 해나 달로 시간을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어지는 순서는 전체적인 시대의 시간 순서를 고려했을 때 과거의 시계의 첫 등장을 나타내는 (B)가 적절하고 (B)의 "clock"부분을 받는 (C), 그리고 (C)의 내용은 시간이 항상 유용한 것 아니냐고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이어주는 (A)가 뒤이어 나오는 것이 적절해서 보기 ③번의 (B) - (C) - (A)가 적절하다
19.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주어진 문장의 But 뒤의 내용은 "그들(X세대)가 22 ~ 37세 사이에 돈을 저축했던 것보다 1981 ~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이 같은 나이(22~37)에 더 많이 저축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보기 ④번 앞 내용 "X세대가 더 높은 순자산율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반대가 되어 But이 들어가기에 적절하고 ④번 뒤의 내용에서 "them"은 주어진 문장의 millennials를 받고 있어 보기 ④번이 적절하다. 보기 ②에 들어가게

	되면 But으로 계속 내용이 바뀌어 글의 흐름에 일관성이 어색해지게 된다.
20.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지문의 중, 후반부 "in other words, ~ the growth of coral." 부분에서 "해양산성화는 산호초의 성장보다 산호초의 분해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 ④번의 내용은 "해양 산성화가 산호초 아래의 분해보다 산호초의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반대로 언급하고 있어 보기 ④번이 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다.

총평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 다소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 매우쉬웠다.
----	-----	---

총평
어휘: 총 5문제가 출제 되었다. 변별력을 갖춘 2번 문제(D책형기준)의 touch off(~을 유발시키다)였으며 이외의 단어들은 어휘장이나 기출어휘로 종종 출제되었던 또는 등장했던 단어들이므로 어휘를 꾸준히 외웠던 수험생들이라면 조금 헛갈렸을 수도 있으나 문맥상으로도 충분히 소거법을 통해 풀 수 있었을 문제(문제 1번의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shun = avoid, alleviate = relieve의 경우 기출 및 단어장에 여러번 등장하는 단어들이므로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법: 총 4문제가 출제되었으며 D책형 기준 문제 5번의 경우 보기 ③번의 문법사항이 좀 지엽적일 수 있으나 기본서 수업 때 언급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3개의 보기를 충분히 소거법으로 지워내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문법문제의 경우에도 핵심적인 문법 사항들 위주로 출제되었으며 특히 7번 문제의 경우 마무리 정리 특강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그대로 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법의 경우 핵심 문법 출제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전체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영어: 총 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생활영어부분도 어휘적인 부분보다는 문맥에 의존하여 풀게끔 출제되었고 내용이나 보기 자체가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독해: 총 9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는 D책형 기준 19번이었고 이를 제외하면 모두 평이한 수준의 지문 난이도와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상세 해석과 어휘는 1주 이내로 제작되어 다시 업로드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고 개인차이가 있어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어휘를 꾸준히 외워오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노력하신 만큼의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진심으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